

버럭 07월호

Contents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	2
6차 발달장애인자조모임 -그레뱅 뮤지엄 <밀랍인형 전시회 관람>	5
<자립생활주택 여가·문화체험>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 관람	8
장애인과 여름휴가	10
장애인권영화 '어떤 시선' 중 첫 번째 에피소드 <두한에게>를 감상 후	12
이달의 정보	13
이달의 시	16
강북센터 CMS자동이체 신청서/CMS납부 목록	18
광고	19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

전난희



2018년 0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이 진행되었다. 강북센터 스텝들은 25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 미리 도착하여 심화과정 참여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가 다 되어가자 심화과정 참여자들이 한분 두 분씩 도착하기 시작하였고, 스텝들과 참여자분들, 강사님까지 한자리에 모인 후 방배치를 안내드렸으며, 오후 3시에 대방동 여성플라자 세미나실에서 강의가 시작된다고 공지해드렸다.

이번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은 박현 동료상담가가 주강사님을 맡아주셨고, 보조강사로는 강북센터에서 배출한 김도형 동료상담가가 맡아주셨다. 25일 오후 3시에 시작한 심화과정은 늘 그럴듯 교육기간동안 자신을 대표할 닉네임을 정하였고, NEW & GOOD을 시작으로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이 진행되었다.



자립생활과 동료상담의 관계, 자조모임과 동료상담의 차이점 등을 두 명씩 짝을 지어 전지에 적어봄으로서 25일은 이론적 강의를 이루어졌다 첫 번째 시간이었지만 동료상담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대부분에 참여자분들이 만족하셨다. 그렇게 첫째 날 강의를 마무리 되었고 참여자분들과 함께 도란도란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식사를 하였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룸메이트와 숙소로 돌아가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26일 둘째 날은 동료상담 진행 시 내담자의 스트레스 치수를 알아볼 수 있는 ‘빛속에 사람’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그렇게 우리는 오전 강의를 마쳤으며,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다. 점심을 배불리 먹은 우리는 오후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세미나실로 다시 모였다. 1시에 시작한 오후 강의는 ‘물고기 가족화’를 진행하였다.



‘물고기 가족화’란 자신과 가족들을 물고기에 투영시켜 그리는 것으로 가족구성원들 여항 속에 물고기를 그림으로써 물고기들의 크기나 위치 등을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족구성원 중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상담기법이다.

다양한 그림심리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족구성원들의 위치와 역할 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참여자들의 호응도를 높였으며, 강의에 대한 참여자들의 집중도 또한 높일 수 있었다. 물고기 가족화를 진행 후 휴식 시간을 가져 음료수와 다과를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10분간의 짧은 휴식 시간이 지나고 동료상담 일지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동료상담 일지는 동료상담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였다. 동료상담일지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일지가 있다. 첫 번째로 내담자에 성향과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초기상담지 작성법부터 알아보았고, 그다음으로 자아 존중감지 작성법을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상담 진행 후 상담내용을 기록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하는 동료상담일지 작성법까지 배워보았다. 참여자들은 상담일지를 작성해 보기 위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것을 토대로 동료상담일지를 작성해 보았다. 동료상담일지 작성법을 끝으로 26일 강의가 마무리되었으며,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였다.



저녁식사 후 대방동 여성플라자 1층 로비에서 참여자분들과 함께 강의평가를 시작하였고, 강의내용에 대한 평가를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강의방식에는 다소 낯설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00씨는 “이번 심화과정을 통해 참가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남의 이야기를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고 말씀하셨으며, 이00씨는 “내담자의 스트레스 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빛속에 사람’을 배울 수 있어서 뜻 깊었으며, 동료상담일지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



27일 마지막 날에는 아침식사 후 세미나실에 모여 NEW & GOOD과 서로에게 피드백하기를 진행하였고, 참여자분들 모두 각자 이번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진행하면서 새로웠던 점과 좋았던 점을 공유하였으며,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의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8월 중순 즈음에 진행 될 보수교육도 기대해본다.

6차 발달장애인자조모임 -그레뱅 뮤지엄 <밀랍인형 전시회 관람>

정진경



7월 25일(수)13:40~17:00 6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의 일환으로 을지로입구역에 위치한 그레뱅 뮤지엄 박물관에서 밀랍인형을 관람하게 되었다. 그레뱅 뮤지엄 박물관은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의 밀랍인형을 전시해 놓은 곳으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던 중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 진행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당일 사전에 미리 참여자들에게 공지했던 시간에 맞추어 모두 모인 것을 확인 후 출석체크와 간단한 공지사항을 안내하고 입장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소 어두컴컴한 입구와 사람과 똑같은 실제크기의 밀랍인형의 모습을 본 참여자들이 긴장한 모습을 보여 당당자들도 긴장했지만 차츰 자신이 아는 유명배우나 가수들의 밀랍인형을 보고 즐거운 얼굴로 사진을 찍기 시작해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특히 참여자 안00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와 가수들의 밀랍인형을 유심히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다른 참여자 송00씨는 호기심 가득한 얼

굴로 비행기를 이,착륙 시키는 게임과 퀴즈게임, 농구게임을 하며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며 에너지이저 같은 모습을 보여 담당자들을 놀라움에 빠지게 하였다. 또한 남00씨는 트럭아트존에서 익살스러운 얼굴로 사진을 찍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약 1시간 30분의 밀랍인형 관람을 모두 마친 후 다 함께 근처의 맥도날드 매장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먹었다. 참여자들 모두 몸을 움직여 배가 고팠는지 센터에서 준비한 햄버거 세트를 맛있게 드셨다.

저녁식사를 하며 금일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여쭙보자 참여자 송00씨는 밀랍인형이 사람의 실제크기로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친근하게 다가와 좋았다고 말씀해주셨고 오00씨의 활동보조인은 오00씨께서 겁이 많아 실제크기의 밀랍인형을 보고 무서워해 자세히 둘러보지 못해 아쉬웠다는 소감을 말씀해주셨다. 또한 이00씨 보호자는 다른 복지관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이색 관람과 체험으로 즐거웠다고 하시어 담당자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게 해주셨다.



저녁식사를 끝으로 금일 프로그램을 마치고 참여자들과 다음을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기약하며 헤어진 후에야 담당자로서 긴장되었던 마음을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금일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신했지만 참여자로 선정된 분들 중 한분이 보호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해 프로그램 당일 불참하시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에 따라 두 번 세 번 확인을 통해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차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준비하여 참여자들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



<자립생활주택 여가·문화체험>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 관람

김다희



7월 25일 여가·문화체험 일환으로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공연을 관람 하였다. 날씨가 너무 무덥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에 혹시나 지치시지는 않을까 걱정 하였으나 걱정과는 다르게 뮤지컬을 관람할 생각에 들떠있는 입주자분들을 볼 수 있었고, 모두 기분 좋은 상태에서 로비에 마련된 포토존에 다 같이 모여 단체 사진 및 개인사진 찍으며 시간을 보내었다.

예매좌석을 확인하기 위해 공연시작 20분 전 입주자분들과 좌석배치도를 확인하였다. 같은 2층에 있는 줄 알았던 휠체어 전용 좌석이 3층에 떨어져 있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직원 분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1층과 3층으로 나누어 휠체어석의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사전 문의할 때 공연관계자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다행히 직원분의 빠른 문제해결 덕분에 김00씨와 활동보조인 선생님께서도 무사히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었다.

뮤지컬이 시작 되자 처음에는 큰 호응과 박수를 쳐주던 입주자 신00씨는 중반 즈음에 노랫소리와 함께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왜 주무셨어요?’ 라는 질문에 ‘귀가 따가워서 그래’ 라는 대답을 하셨다.



또 입주자 정00씨는 ‘뮤지컬 재미있는데요? 왜 주무시지?’ 라고 이야길 하며 노래가 끝날 때 마다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였다. 휠체어 석으로 인해 같이 앉아 관람을 할 수 없었던 입주자 김00씨는 ‘어떠셨어요? 노래 정말 잘 부르죠? 재미있었죠?’ 라는 질문에 웃으며 재미는 있었는데 너무 멀었다며 다음에는 가까운 곳에서 관람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로서 무사히 뮤지컬 관람을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였지만, 장애인 콜택시가 예상과 다르게 연결이 빠르게 되어 저녁을 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으로 근처 카페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여가·문화체험은 입주자 분들 모두가 원했던 뮤지컬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 분들이 매우 만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아쉽게 못한 저녁식사는 추후 외식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일정협의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여름휴가

박지훈

찌는 듯한 한낮에 태양은 당장이라도 시원한 계곡과 탁 트인 바닷가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해수욕장도 부족하고 계곡 또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힘들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름휴가 가는 건 생각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장애인들도 해수욕장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캠프가 있어 소개할까한다.

서울시와 양양군청에서 후원하고 곰돌이봉사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서울시 장애인 해변캠프'다.

오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강원도 양양군 광진리 큰바다해수욕장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 해변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장애인 해변캠프'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장애인과 가족, 단체 등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박 3일 동안 1인당 2,000원의 이용료로 즐길 수 있다.

깊지 않은 수심에 넓은 백사장이 특징인 광진리 큰바다해수욕장은 배후 소나무 숲이 드리운 천연 그늘막까지 있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휴식처다.

1인당 2,000원에 숙박용 텐트·물놀이 안전용품·온수샤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용 텐트 야영공간과 휠체어, 베개, 이불도 무료로 제공된다. 지난 24년간 누적 인원 22만 명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장애인 해변캠프는 1일 최대 4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도 1만 3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캠프에서 해변까지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 통행로(바닥 팔레트)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가족샤워장·시각장애인 안내촉지도 등 편의시설을 마련,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화기·온수 보일러·해충 퇴치기·심장제세동기 등을 설치, 이용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을 도우며 24시간 상주하는 4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중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행사를 관리하는 현장 운영본부에서 119 양양 소방서와 현남면 보건지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 응급 처치 및 환자 이송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물놀이 이외에도 해변문화축제로 노래자랑대회·해변 보물찾기·해변 시네마·페이스페인팅·가족사진촬영·수영강습·수상안전 교육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펼쳐지며 가정식 식당과 간이매점 등 편의시설이 입점, 먹거리를 제공한다.

‘서울시 장애인 해변캠프’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 및 가족은 공동리봉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공동리봉사협회에 참가 신청서를 팩스(0303-0952-4025)로 보내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동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해바다 청정지역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큰바다해수욕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해변캠프를 마련했다”며 “마음껏 해수욕도 즐기며 모두의 가슴 속 행복한 추억을 많이 남기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제적인 문제와 편의시설에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개인적으로 휴가를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장애인 해변캠프’ 오 같은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자료출처.

<http://www.lectur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6>

<http://www.komduri.or.kr>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인권영화 ‘어떤 시선’ 중 첫 번째 에피소드 <두한에게>를 감상 후

이선자



장애인권영화 ‘어떤 시선’은 오픈버스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장애인 친구와 우정, 노인 문제, 그리고 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시선’ 중 첫 번째 에피소드로 관람하였던 ‘두한에게’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두한이와 그런 두한이의 절친한 친구 철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두한이는 단순한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용당한다. 철웅은 유일하게 두한이를 감싸주고 이해하는 친구였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친구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도둑질하고, 이를 들켜기까지 한다. 이후 철웅은 자신을 반성하고 두한이에게 용서를 구하며 둘의 관계를 이어 나간다.

이 중에서 두한이가 그리는 여자 그림과 이성에 대한 관심을 통해 두한이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다른 아이들과 같은 평범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남자아이란 것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에 철웅이가 두한이 형의 아이패드를 훔친 것을 들켜 형에게 두들겨 맞고 도망쳐 비밀장소에서 두한이와 다시 만났을 때, 철웅이는 두한이에게 미안하다했고 두한이는 항상 철웅이에게 꾸중 들었던 말을 되돌려주고, 둘은 서로 웃으며 끝난다.

처음에 장애인 친구와 같이 밥 먹는 장면을 보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과 같이 먹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먹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통 일반학교에 장애인들이 다니면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또, 비장애인들과 친해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도 들었고, 비장애인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학교 쉬는 시간에 비장애인 친구들 2명이 두한이에게 와서 못하는 것을 시키고 못할 때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보고 나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 중 일반학교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왜? 비장애인 친구들은 장애인 친구들이 못하는 것을 찾아놓고 그 장애인 친구들에게 가서 여러 사람 앞에서 시킬까? 라는 생각을 했다.

사회에는 영화와 반대로 장애를 가지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장애를 가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까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기에는 지켜보는 불편한 시선들이 많으며, 이런 불편한 시선들은 우리가 손을 내민다면 조금은 좋아지고 더 나아가 영화처럼 우리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이 영화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같은 장애인이며 비장애인인 동시에 하나의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았다.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 안의 내면적인 면이 그들의 '장애'를 결정하며, '인권'이란 내면적인 것 대신에 외형적인 것의 차별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 영화를 보며 새삼스레 느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습하며 영화 후반에 노는 애들에게 대결(?)을 신청하며 계속해서 동전을 치는 두한이의 행위 또한 이런 외형적 차별에 대한 '반항'으로 보였다. 단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보이는 이 영화를 보며 나 또한 화가 치미는 상황이 떠올랐다.

휠체어를 타는 친구와 놀려 외출을 하였는데 중·고등학생들로 보이는 패거리들이 다가와 "야! 너희는 장애인인데 왜? 밖에 나와 있냐? 차라리 나오지 말고 집에 있지 그랬냐?" 라는 말을 하고 우리 둘을 툭 치고 지나갔다. 나는 영화 보면서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당시에 "내가 당당하게 나는 외출할 권리가 있어" 라는 말을 했어야 했다고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장애인 이라고 무시하지 마! 그리고 우리에게도 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같이 외출을 하였던 그 친구가 상처를 덜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런 장애인권영화를 비장애인들에게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달의 정보

2018 제3회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공연일자	2018.08.01.(수)~08.05(일)
공연시간	수요일, 목요일 20:00 / 토요일, 일요일 17:00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단체명	2018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연출자	이애현(예술감독)
출연	국내초청 및 신청무용단(수) / 해외초청 무용단(수)
안무	국내초청작 안무 : 강성국, 김성용, 김진호, 이미경, 장혜림, 전은선, 홍혜전
	해외초청작 안무 : Redouan Ait Chitt & Jeroen van der Linden, Alessandro Schiattarella, Antonio Quiles Villanueva, Adam Benja
입장료	균일석 20,000원
관람등급	만 5세 이상
관람시간	100분
문의전화	02-309-7922

자료출처-

<http://theater.arko.or.kr/Pages/Perf/Detail/Detail.aspx?IdPerf=257155>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 미술대전

1991년 공동리문학상 · 미술대전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1998년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 미술대전으로 개칭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장애인 문학 및 미술 공모전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27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 미술대전은 장애를 가진 문인과 미술인에게는 이 상이 창작활동의 목표이자 꿈이 되었습니다. 28회째를 맞는 금년 공모전에서 장애문인 및 미술인들의 예술활동에 큰 활력소가 되어 더욱 멋진 예술적 능력을 발현하시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공모요강

공모부분	은문부 - 시 : 3편 이상
------	--------------------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p>산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A4 기준 12매) - 중편소설 : 200자 원고지 300매 이상 (A4 기준 50매) - 수필 :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A4 기준 3매) - 동화 : 200자 원고지 25매 내외 (A4 기준 5매)
작품분량	<p>한글에서 원고 작성 시 편집용지 규격(A4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체 : 휴먼명조 - 크기 : 12P / 줄간격 : 160 - 여백 : 좌우 30, 위아래 20
응모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사람(복지카드 사본 제출) - 미등록 장애인은 증명서류 제출 - 나이제한 없음
작품접수	<p>접수 일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6.01(금) 09:00 ~ 08.24(금) 18:00까지 <p>접수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 lite-prize@fdca.or.kr - 우편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613호 <p>※ 응모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p>
심사발표	<p>2018. 8월중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http://www.fdca.or.kr/) 홈페이지에 게시</p>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공모요강	
구분	규격
미술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화, 서양화 : 30 ~ 50호 이하 (틀의 폭은 한쪽이 10cm 이하) - 공예, 조각 : 평면작품 70cm × 120cm 이하 입체작품 60cm × 60cm × 100cm 이하 - 서예, 문인화 : 70cm×200cm 이하 - 전각, 서각: 50cm × 100cm 이하
특별상 (추천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화, 서양화 : 30 ~ 50호 이하 (틀의 폭은 한쪽이 10cm 이하) - 공예, 조각 : 평면작품 70cm × 120cm 이하 입체작품 60cm × 60cm × 100cm 이하 - 서예, 문인화 : 70cm×200cm 이하 - 전각, 서각: 50cm × 100cm 이하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사람(복지카드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사본 제출) - 미등록 장애인은 증명서류 제출 - 나이 제한 없음			
작품접수			
- 접수일시			
구분	접수시간	제출서류	비고
1차 사진접수	18.08.13(월) - 08.17(금)	· 출품작 사진 2부 · 출품원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복지카드 사본 1부	이메일 및 우편접수
2차 완품접수	18.08.21(화) - 08.24(금)	· 1차 사진심사 선정 작품	사무처 방문접수
*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접수도 위와 동일합니다.			

※ 출품원서 작성 후 첨부

※ 서예 및 문인화는 입상작 발표 후 일괄표구, 제작비 본인 부담(미 표구 시 낙선 처리 됨)

접수방법	- 이메일 : art-exhi@fdca.or.kr - 우 편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613호
작품내용 및 유의사항	- 출품원서 작성 후 첨부 - 출품료: 없음 - 순수 창작품으로 국내·외에서 발표되지 않은 작품 - 서예 및 문인화는 입상작 발표 후 일괄표구, 제작비 본인 부담(미 표구시 낙선처리) - 전시 중 파손의 위험성이 없는 작품 (유리금지) *유리파손 시 작가부담
심사발표	2018. 8월중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http://www.fdca.or.kr/) 홈페이지에 게시

자료출처- http://www.fdca.or.kr/bbs/content.php?co_id=business03c

희망

유하

풍덩이가 방충망을 온몸으로 들이받으며
징허게 징징거린다

(난 그의 짐착이 부담스럽다)

나도 그대 눈빛의 방충망에 마음을 부딪치며
그렇게 징징거린 적이 있다
이 형광등 불빛의 눈부심은
어둠 속 풍덩이를 살게 하는 희망?

(글쎄, 희망이란 말에 대하여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그가 속삭인다)

그 무엇보다도,
징징대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풍덩이는 벌써 풍덩이의 삶을 버렸으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수납업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납목적	회원회비
대표자	정종남	사업자등록번호	210-82-68864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신청정보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연락처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고정금액 (원) <input type="checkbox"/>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부일 매월 25 일 *미납시 일, 일 재출금
금융거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활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 동의하지 않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효성에프앤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제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 동의하지 않을 []	
# 자동이체 동의여부 동의지 안내 : 효성에프앤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효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18년 07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석현	김숙이	김용자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박동열	박민숙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오재준	윤두선
이동현	이상훈	이영훈	이하용	임상욱	장민정	전난희
정주영	주영경	최미경	최윤숙	최전균	허효숙	홍점표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자립생활기술교육 '배워보아요' 미술심리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립생활기술교육'배워보아요'- 미술심리교육은 미술을 이용한 창작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안정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개인의 무의식적인 면을 이해하여 자기 통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다음 아래와 같이 자립생활기술교육 미술심리교육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사 업 명	자립생활기술교육'배워보아요' - 미술심리교육	
주 제	이름으로 말하는 나! / 풍경구성법을 통한 심리 알아보기	
일 시	1차 - 2018년 8월 09일(목) 13:00 ~ 17:00 2차 - 2018년 8월 16일(목) 13:00 ~ 17:00	
장 소	강북센터 교육실(1707호)	
모 집 대 상	서울 및 강북구(우선순위) 거주 장애인	1차 - 지체·뇌병변장애인 5명 2차 - 발달장애인 5명
신 청 서 류	신청서, 복지카드사본	
참 가 비 용	무료	
신 청 기 간	2018년 8월 7일(화) 오후 5시	
신 청 방 법	강북센터 홈페이지 http://kbcil.co.kr 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kbcil@daum.net 또는 사무실(수유역 가든타워 1119호) 방문접수	
기 타 문 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996-7776 ✉ kbcil@daum.net	

※ 위 일정은 센터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